고규홍의 '나무 생각'

봄은 낮은 곳에서 온다

숲이 깨어난다. 길었던 겨울잠에서 깨어나 땅속 깊이 내린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날갯짓을 시작한다. 서리서리 뻗은 뿌리들이 제가끔 기지개를 켜며 물을 끌어올린다.

시작은 고로쇠나무였다. 땅 깊은 곳에서 시작한 봄의 기운을 고로쇠나무가 알아챈 건 벌써 한 달쯤 전이다. 나무줄기에선 물오르는 소리가 약동하고, 이를 감지한 농부들은 나무줄기에 상처를 내고 호수를 꽂았다. 사람에게 수액을 빼앗기면서도 나무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릴 양분을 지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새 잎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으려면 온 가지에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봄의 전령 복수초의 노란 꽃이 피어난 것도 이미 한참 지났다. 사람의 눈치로는 도무지 언 땅 어디에서도 봄의 기운을 채 느끼기 전인 스무 날 쯤 전이다. 산중에 쌓인 눈과 얼음을 뚫고 피어난다고 해서 '얼음새꽃'이라는 별명도 가진 풀꽃이다. 하지만 복수초가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건 아니다. 눈 내리기 전에 피어난 복수초 꽃송이 위로 쌓인 눈을 복수초 꽃의 열기가 녹인 것이다. 눈 내리고 얼음 얼어도 이미 다가온 봄의 조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복수초의 결기다.

매운바람 눈보라 맞으며 피어 있는 복수초 꽃은 작지만 환하다. 꽃잎 안쪽에 무수하게 돋아난 꽃술들은 볼수록 화려하다. 가늣하게 비쳐 드는 햇살을 그러모으려 꽃잎을 둥근 접시처럼 안쪽으로 오므렸다. 꽃송이 한가운데로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다.

작은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생존의 슬기를 총동원해 노랗게 피었지만, 복수초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고개를 높이 쳐들지 못했다. 땅바닥에 납작 쪼그려 앉은 채 피어난다. 거의 바닥에 붙어서 피어나는 복수초의 키는 고작해야 10센티미터 남짓이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풀꽃들은 대개 키가 작다. 낮은 땅에 바짝 붙어서 피어난다. 복수초와 함께 봄을 알리기 위해 나설 노루귀·새끼노루귀·바람꽃 역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피어난다. 족두리풀이라는 풀꽃은 아예 초록 잎을 이불처럼 덮고, 그 아래 땅바닥에서 꽃을 피운다. 땅의 온기에 기대어야 할 뿐 아니라 봄기운으로 위장한 겨울바람이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은 항상 낮은 곳에서 찾아온다. 복수초가 알린 봄소식은 봄의 증표라기보다 봄의 기미를 알리는 예고에 지나지 않는다. 봄이 다가오는 조짐을 감지한 작은 생명들이 부르는 봄의 전주곡일 뿐이다. 동토의 숲에 봄소식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웠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를 꽃샘바람이나 잎샘바람에 대비해야 한다. 동장군은 채 물러가지 않았다.

19세기 영국 작가 조지 기싱도 그랬다. "눈옷을 입고 서리 수염을 단 정직한 동장군이라면 무례하지 않게 맞을 수 있지만 봄의 약속을 마냥 뒤로 미루면서 뒤늦게 찾아오는 겨울의 기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봄으로 위장한 겨울 기운은 "봄의 명예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앗아 간다"고 했다.

볕 바른 곳에 서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꽃 한 송이 피었다고 해서 창졸간에 이 땅에 봄이 다가오는 건 아니다. 철모르고 피어난 개나리·철쭉 꽃 한 송이를 만났다고 해서 봄을 노래할 수는 없다. 호들갑은 이르다. 긴 겨울을 지낸 우리네 성정이 그러하지만 봄은 겨우 낮은 곳에 도착했을 뿐이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다. 겨울 추위를 광장에서 혹독하게 지낸 탓에 봄을 기다리는 봄마중이 유난스레 간절하고 왁자하다. 온갖 말들이 소음 되어 허공을 떠돈다. 우리네 겨울이 깊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오려면 이겨 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겨울의 기세에 눌려 속에만 담아 두었던 말들을 무작정 쏟아 낸다고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다.

나무의 마을에도 사람의 마을에도 항상 봄은 낮은 곳에서 온다. 낮은 곳에서 시작한 봄기운을 채 담지 못한 채 홀로 중뿔나게 피어난 꽃들은 결국 조지 기싱의 이야기처럼 봄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혹독하게 겨울을 치른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앗아갈 수 있다.

아직 바람이 맵다.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낮은 곳에서 보내오는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되찾아야 할 봄의 찬란한 명예다.

〈나무 칼럼니스트〉

커피 한 잔

우리 안의 파시즘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배하는 자, 지휘하는 자는 손에 막대를 쥔다. 홀(笏)이다. 이집트 파라오의 황금 지팡이와 총채, 로마황제의 상아 홀이 떠오른다. 전국시대 중국의 군주들도 청동막대에 비단술이 달린 홀을 쥐었다. 높이 치켜든 홀에 광장의 수만군중은 열광하고 전고(戰鼓)가 울리는 가운데 홀이 방향을 가리키면 백만대군이 행군을 시작했다.

홀과 같은 상징물로 공화정 로마 집정관들이 쥔 속간(束桿)이 있다. 흰 자작나무 줄기 여러개를 붉은 가죽으로 묶은 다발이다. 여러 계급과 부족을 함께 통솔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황동 도끼날을 끼워 넣어 강력한 지배력을 상징했다. 이걸 라틴어로 파세스(fasces)라 불렀다.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파세스는 오늘날 미 상원의 문장에도 남아있다.

1차대전 후 혼란기 이탈리아에서 대중폭력에 기초해 정권을 잡은 베니또 무솔리니는 기고만장했다. 1920년 사회주의자들이 북부 이탈리아 공업지대에서 공장을 습격해 점령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무솔리니는 몽둥이를 든 청년들로 조직을 꾸려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도시들을 공격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스스로를 '검은셔츠단'이라고 불렀다. 반세기전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 가리발디가 '붉은셔츠단'을 지휘한 것의 모방이다. 무자비한 린치였다. 무솔리니 일당은 시청 의회들을 박살내며 '국가의 적'들을 처단했다는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사회주의 확산을 겁낸 교황청까지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판이니 거칠것이 없었다. 무솔리니는 급기야 로마 집정관의 파세스에서 이름을 딴 파시스트당을 창당하고 1922년 국왕으로부터 수상으로 임명된다.

무솔리니는 1925년에 이르러 파시스트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이탈리아를 비극적 전체주의의 길로 내몬다. 2차대전 추축국이 된 이탈리아 국민들의 비극은 고스란히 1920년부터 25년간 휘몰아친 비 이성적 국가주의의 결말이었다. 그들은 발코니에서 연설하는 베니토에게 울부짖으며 열광했으니까.

오늘날 파시즘이란 용어는 경멸적으로 쓰인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체없는 집단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핏대를 올리는 행위나 사고를 지칭한다. 파시즘은 폭력을 동반한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나치즘이나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나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나 문혁(文革)기의 마오이즘도 파시즘이다. 나는 두테르테와 트럼프의 등장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여긴다.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한 프랑스의 르펭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말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반 문명적 폭력(그것이 경제제재건 경찰력이건)의 동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대중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비극을 초래하는 파시즘은 왜 생기는가. 사회불안 때문이다. 1차대전후 이탈리아는 전승국이면서도 푸대접 받았다. 물가는 뛰고 사회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기도했다. 실업이 늘고 정치권은 무기력했다. 비이성적 선동가가 탄생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셈이다. 학자들이 이를 분석해 파시즘의 발생배경을 정리하길, ①국내정치의 불안 ②대외적 위기 ③실업 불황의 지속 ④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⑤이익집단의 대립격화라고 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내일이 불안하며 세상이 온통 싸움질이면 파시즘이 고개를 쳐든다는 것이다.

이쯤하면 어떤가,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 되지 않는가. 수개월째 계속되는 탄핵사태, 북한의 핵무장과 미 중사이에 낀 외교 딜레마, 일본의 계속되는 극우화, 끝모를 실업 증가과 경기침체, 자영업의 몰락, 가계부채의 무서운 증가,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쟁패, 광장에서 대치하는 너무도 다른 두 세력, 이 모든 것들이 으스스한 전조로 여겨지지는 않는가.

아직 복면 쓴 각목부대의 출현은 없다 하더라도 민생의 피폐와 혼란이 지속되면 '분노한 국민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규탄한다거나 처단한다는 구호가 튀어나올 것만 같다. 광장의 함성에 올라타 급진적 주장으로 박수를 받는 작은 베니토들이 벌써 눈에 띄지 않는가. 이 시점에 이성과 합리주의를 말하는 자에게 앞뒤 살피지 않고 보수반동이라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인간은 집단의 일원이 아닌 자각하는 개인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존엄할 것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만의 철학으로 일상을 버텨내기 지친다 할지라도 발코니의 파시스트에게 열광하는 군중의 일원이 되어버리고 싶은 유혹만은 이겨내야만 한다.

기 고

끈끈한 '情'… 그러나 법질서 장애요소 된다면…

김 현 철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보도의 대상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작은 죄든, 큰 죄든 범법자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비선실세는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 흉악범, 잡범 할 것 없이 법을 어겨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뉴스에 등장한다. 우리들의 의식과 정서에 법질서 수호의지와 법 준수 의식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시기다.

해외에서 살다 수 년 전 귀국해 순환도로를 운전할 때다. 앞차를 추월하고자 추월선을 타고 달리는데 내차 앞 노란색 차가 도대체 비켜주질 않는다. 자세히 보니 운전교습용 차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막무가내다. 나중에 그 속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 '운전교습학원에서 고속도로 추월선을 탔을 때 뒤에서 쫓아와도 비켜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집 앞 도로 신호등 앞 2차선 도로에는 좌측 차선에는 직진 및 좌회전 화살표시가 돼있고 오른쪽 차선에는 우회전 화살표시만 그려져 있다. 직진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좌회전할 차가 오른쪽 차선에 서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신호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왼쪽 차선 맨 앞쪽에 경찰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왜 도로에 방향표시 화살표를 그리지?'라는 생각이 든다.

주차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주차하면 그곳이 주차장이다.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은 우회전 하자마자 커브길 옆에 불법으로 주차한다. 우회전 차선을 줄줄이 주차 점거해 아예 왼쪽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는 허다한 일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이나 주차장 상황이 법규준수 하기에는 너무 열악해 일정부분 법규준수의무를 유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일정부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이유보다는 나 자신이 법규를 준수했을 때 얻는 시간·물질적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사실 해외에 살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한 주행과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끼어들기 선수가 되지 않으면 목적지에 시간 내 도착할 수 없고, 법대로 하다가는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내가 오래 살았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따기가 너무 쉽다. 면허 취득료 뿐 아니라 교습비도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 제대로 가르쳐 줄 리 없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면허소지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운전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다.

엄격한 운전면허시험은 교통사고방지와 도로교통법의 준수 및 차량대수의 증가방지의 필수조치인데 당국자들은 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 또한 사고의 바탕에 우리 정서 속에 흐르는 '정' 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준수 즉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질서 의식은 모든 법질서의 시발(始發)이며 근본이다. 운전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범하는 위법행위들은 자연스레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켜 더 크고 귀중한 법 준수의식을 와해(瓦解)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민족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더 많이 특징되는 것 중에 '정'이란 정서가 있다. 우리지역 사람들의 정은 정말 유별나다. 그러나 그 정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과 달리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내가 물건을 팔아준다"는 생각이 근저(根底)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물건 또는 음식을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만, 갈아주는 것 또한 정을 베푸는 것이니 마음에 차지 않으면 서운해진다.

조직 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의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정은 조직 내의 규칙 준수에 방해가 되어 조직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정과 규범(規範)은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남의 불법행위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끈끈한 정이 법집행과 같은 법질서 정비에 장애요소가 된다면, 사회정의가 구현돼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에 취해만 있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봄직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우병우 수사 일부러 안 했나 시간이 부족했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최 씨의 국정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대부분 국민의 생각이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도 모자라 보좌를 했고, 이런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거꾸로 몰아내기까지 했다.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 판에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 전 수석 존재 자체가 검찰의 치욕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 기한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사 기간 연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듯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특검에서조차 우 전 수석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수사 기한이 2월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제대로 서술한 역사교과서 곧 나온다니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강행에 맞서 광주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상세히 기술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만들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4개 시·도 교육청이 개발 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검토본(고교)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재 개발에는 광주시와 전북·강원·충남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다.

보조교재에는 국정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왜곡·축소됐던 5·18이 모두 6쪽에 걸쳐 자세히 기술될 예정이다.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당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개된다. 광주 4·19혁명,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사도 실린다.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축약됐던 호남 의병 활동 기록도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 어등산'이라는 주제로 2쪽에 걸쳐 서술된다.

집필위원 35명은 오늘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워크숍을 갖고 80개 주제별 내용을 검토·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중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담길 주제 선정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보조교재는 헬기 기총소사 등 5·18 진상규명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집필돼 더욱 뜻깊다. 학생들이 보조교재에서 광주항쟁을 접함으로써 '5월의 전국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기술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가 폭넓게 반영된 점도 돋보인다.

4개 시·도 교육청은 보조교재 공동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전국 학생들의 교재로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한 획을 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각 지역사가 고스란히 실린, 살아 있는 '역사교과서'를 기대한다.

無 等 鼓

도깨비 책방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책을 골랐다. 가끔 동네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면서부터 인터넷 서점 이용이 뜸해진 요즘이었다. 늘 이용하던 알라딘이나 예스 24 등 대형 인터넷 서점 대신 지역 서점 포털사이트 '서점온'(www.booktown.or.kr)을 클릭했다.

책 목록을 살피는 건 언제나 흥미롭다. '문구 애호가'로서 탐이 나는 책은 데이비드 리스의 '연필깎기의 정석'이다. 읽는 내내 웃느라 정신을 못 차렸던 '베를린 일기'의 저자 최민석의 초단편 소설집 '미시시피 모기떼의 역습', 영화로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에버쇼프의 '대니쉬 걸'도 눈에 들어온다.

내가 훑어본 목록들은 22~25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깨비 책방'에서 만날 수 있는 책들이다. '도깨비 책방'은 공연·전시나 영화를 보고 난 뒤 유료 관람권(2월 관람)을 제시하면 책으로 무료 교환해 주는 행사다. 지난해 발생한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를 지원하고 공연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즈음해 기획했다.

이번에 교환되는 도서는 461개 출판사 468종 5만5000부, 8억7000만 원어치다. 당초 4만 부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처럼 전격 확대됐다.

'도깨비 책방'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인터넷의 경우 '서점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1인당 1권씩 무료로 배송해 준다. 오프라인 책방은 7곳에서 열리는데 광주의 '도깨비 책방'은 메가박스 전대점 3층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매일 800~900여 권씩 4일간 총 3500권이 주인을 기다린다. 교환 목록은 전문가로 구성된 '도깨비 책방 도서 선정위원회'가 마련한 터라 신뢰도도 높다.

이번 교환 대상 도서는 '1인 출판사'가 펴낸 책들이다. 책 목록을 찬찬히 살피다 보니 새삼 머리를 스친 생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참 많은 이들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보고 싶었던 영화 '맨체스터 바이 더 씨'를 관람한 뒤 '도깨비 책방'을 이용할 생각이다. 25일 관람 티켓까지 가능하니 혹시 영화를 볼 계획이 있다면 티켓을 지참하고 '도깨비 책방'에 들러 보는 것도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